



낙도 주민 건강관리에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완도군내 낙도주민 무료검진 참가한 건협 광주·전남지부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가 낙도주민 무료 진료에 참가해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고 있다.

완도군 보건의료원에서 실시하는 이 낙도주민 무료 순회 검진은
지난 6월 20일에 시작되어 오는 8월말까지 실시될 예정으로, 완도군
내 201개 섬 가운데 55개 유인도의 1,200가구 3,500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순회진료에는 완도군이 4억8천여만원을 들여 마련한
순회진료선이 한뫼하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의료혜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 곳곳의 낙후지역에 작은
불씨가 번져나가기를 바라면서 이번 순회진료에 대해 소개해 본다.



이번 무료 순회검진은
완도군내 55개섬의
3,5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 뜻있는 일을 한다는 생각에 뿌듯함 느껴

낙도주민 무료진료를 위해 출발한 첫날, 뭔가 뜻있는 일을 하기 위한 발걸음이란 생각 때문인지 푸른 바다 위로 넘실거리는 파도와 저만큼 떠 있는 조각배들이 더욱 반갑게 느껴졌다. 소금기 어린 바다 바람조차도 상큼하게 다가와 이마의 땀방울을 훑고 지나가는 듯했다.

날씨가 좋지 않아 출항할 수 있을까 하는 아침나절의 우려와는 달리, 우리는 무료진료 첫 목적지인 완도군 청산면 모도섬에 무사히 도착했다. 멀리서는 마치 장난감 같아 보여, 저런 곳에도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했는데 가까이 갈수록 점차로 커지는 섬의 모습이 꽤나 위엄있게 다가왔다.

선착장에 내려, 미리 나와 계셨던 이장님과 인사를 나눈 후 검사 장소인 마을회관으로 향했다.

• 그들에게도 의료의 혜택은 주어져야 한다

회관에는 이미, 검사를 받기 위해 마을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우리는 곧바로 짐을 풀고 검사를 시작했다. 모두들 진지하게 검사에 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최선을 다해 검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병일 완도군수는
낙도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4억8천여만원을
들여 진료선을
제작했다.

일평생을 바닷바람과 씨름하며 사셨을 나이 드신 어른의 얼굴에는 그 세월만큼의 주름살이 그려져 있었다. 그들도 모두 이 땅의 국민인데, 그들에게도 보건의료의 혜택이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 끝에 커다란 아쉬움이 남는다. 더불어 미약하나마 무료진료에 나선 사람들이 그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다짐을 새롭게 해본다.

• 55개섬의, 3,500여명 진료 예정

완도군 보건의료원에서 실시하는 유인도서민 무료 순회 검진에 건협 광주·전남지부가 참가하게 된 것은 문병일 완도 군수의 요청에 의해서였다.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이홍량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의 평소의 뜻이 일치한 것이다.

이번 무료 순회 검진은 완도군 201개 섬 가운데 55개 유인도의 1,200가구 3,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지난 6월 20일에 시작되어 오는 8월말까지 있게 될 이번 검진에서는 기초적인 진료 외에 내과·소아과·외과·산부인과 검진과 X-Ray 촬영 등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지역 방역활동과 농수산 관련 행정지도도 병행되고 있다.



이번 무료진료가
계기가 되어
전국의
보다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의료의 혜택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

• 초현대식 순회 진료선도 마련

특히 이번 무료진료를 계기로 문병일 원도군수는, 낙도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4억8천여만원을 들여 순회 진료선을 제작하기도 했다. 이 진료선은 X-Ray 촬영식을 비롯해 각종 검사 시설이 구비된 초 현대식 쾌속선. 이번 순회진료 동안 이 진료선이 툭툭히 한 몫을 해내고 있음은 설명이 필요치 않다.

•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 진료의 혜택 주어졌으면

원도군의 낙도들처럼, 의료혜택이 절대적으로 아쉬운 곳이 우리나라에는 너무도 많다. 그러나, 그 필요성을 충족시키기에는, 우리는 투자해야 할 다른 많은 문제들이 있고 예산도 부족한 형편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보건의료 담당자의 의식과 결단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원도군의 이번 순회검진 추진과 진료선 마련은 그 의미가 작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서산마루에 등근 해가 걸릴 때쯤 모도섬 주민의 진료를 마치고 다시 진료선에 몸을 싣는 우리 일행의 가슴 속에는 이 조그만 봉사가 파도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 나가기를 기원하는 작은 불씨가 하나로 타오르고 있었다. 74